

**【후루사토 납세의 특산품 송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의 오모리입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후루사토 납세」로 일정액 이상의 기부를 해 주신 분에 대해서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보내는 것으로, 경정 예산안을 9월 2일에 개최하는 9월 정례 시의회에 제안합니다.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기 부담액 2,000 엔을 넘는 부분의 세액이 공제되는 「후루사토 납세」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6년. “지금 와서 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카야마 현내의 15 시 안에 오카야마시를 제외한 14 시는 이미 기부를 해 주신 분들께 특산품 등을 송부하고 있지만, 오카야마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미지 캐릭터 핸드폰 줄이나 미술관 등의 상설 전시 입장권을 곁들인 감사 편지를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지만 2008년 이후 6년간 오카야마시에는 134건, 약 1,880만 엔의 기부를 받은 한편, 오카야마 시민이 다른 자치 단체에 기부 한 건수는 5,266건, 공제된 시민 세금 총액은 약 6,900만 엔을 뒀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피해 지역에 많은 기부가 전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몇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전후를 포함하여 오카야마 시의 입장에서 보면 수지 기반이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카야마의 「후루사토 납세」를 시측에서 더 PR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것으로 오카야마시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번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답례품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만, 경정 예산안이 승인되면 10월 1일 이후에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기부 금액에 따라 3,000 원 내지 5,000 원 상당의 제품 (발송은 12월 이후)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부는 오카야마 시민 여러분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례품으로는 복숭아, 머스켓, 오카야마 명과는 물론, 현지 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오카야마가 자랑하는 많은 특산품의 PR 과 새로운 유통 촉진의 계기도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후루사토 납세」를 둘러싸고, 지역 재생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 금액의 상한을 2 배로하고 절차도 간소화 하자 (확정 신고 불필요) 는 국가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어, 제도가 개정되면 오카야마로 답례품 금액을 올리는 등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이번 답례품 송부하려면 먼저 인터넷 상에서의 기부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신용 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등 가능한 간단한 절차로 기부를 하실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정비 해 나가려고 합니다(12월부터 실시 예정).

여러분도 이 기회에 꼭 고향에 대한 마음과 오카야마 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카야마시의 「후루사토 납세」를 부탁드립니다.